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 신 목
<새생각회 회장>

장갑이 하는 일

장갑은 손을 도와주는 도구다. 언뜻 생각하면 장갑 짚은 종류가 적을 것 같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제법 많다. 먼저 장갑이 하는 일을 몇 가지 들어보면, 추위를 막아주고, 습기를 막아주기도 하며, 손을 아름답게 꾸며주기도 한다. 또한 빨래할 때 손의 거칠어짐을 막아주고 벌레나 가시에 찔림을 막아주며, 관혼상제 때에는 예절을 지키려고 끼기도 한다. 작은 장갑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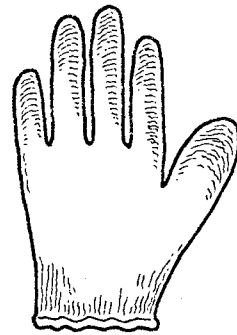
사람은 지혜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도구를 발명하여 몸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한다. 만일 장갑 없이 맨손으로 모든 일을 해낸다면 손을 다치거나 거북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동물 가운데서 손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두 손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발명해 낸 장갑말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발명이 필요할 터이니, 불편하거나 필요함을 느낄 때를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고쳐보자.

손 도와주는 장갑

보통장갑<그림 1>은 매우 널리 쓰인다. 그리고 소재도 아주 여러 가지다.

가죽 장갑, 털 장갑, 면 장갑, 고무 장갑,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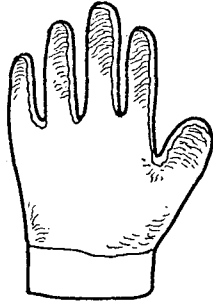
일론 장갑 등 소재와 모양에 따라 하는 일도 서로 다르다. 추위를 막아주는 일에서 손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까지, 쓰임은 놀랍게 많다. 쓰임에 따라 장갑 모양이나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장갑을 발명할 수 있다.



<그림 1>

찰고무 입힌 장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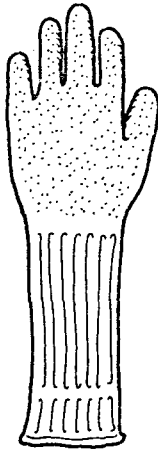
면으로 만든 보통 장갑 바닥에 찰고무를 입힌 고무 장갑<그림 2>은 벽돌을 쌓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할 때에 손에 시멘트가 묻거나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업을 해도, 손바닥이 뜨거나 부풀지않아서 좋다. 보통 장갑의 한 부분에 고무를 살짝 입혔을 뿐인데 이처럼 편리해졌다.



〈그림 2〉

부엌일의 필수품

고무 장갑〈그림 3〉은 어느새 부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됐다. 부엌일은 거의 물을 다루기 때문에 주부들의 손은 늘 물에 젖어 무좀이 걸리고 습진에 시달렸다. 그러나 고무 장갑은 부엌 일뿐만 아니라 의료용이나 공업용으로 까지 널리 사용하게 됐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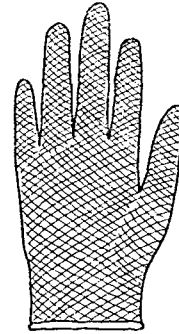
땀나는 도구도

구멍이 송송 뚫린 망사 장갑〈그림 4〉은 귀부인에게 듬뿍 사랑받던 장갑이지만 요즘은 값싸게 공급되어 여성이면 누구나 널리 쓸 수 있게 되어 장신구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망사는 공기가 잘 통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손을 아름답게 보이게도 하니 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밖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들이 쓰는 물건은 쓸모와 함께 볼품을 무시해선 안된다.

생활이 풍요해질수록 볼품의 중요성은 자꾸만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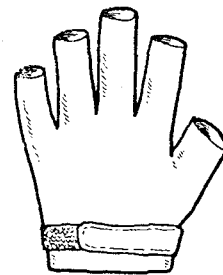
〈그림 4〉

운전용 지른 장갑

손가락 끝이 없는 지른 장갑〈그림 5〉은 운전 기사들이 애용한다.

손으로 계속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므로 손가락 끝으로 핸들을 놓치지 않게 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하여 손의 땀을 건조시키려고 장갑 끝을 잘라냈다. 필요하면 덧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발명이 된다.

운전할 때 장갑보다는 손가락 끝이 운전감각을 살려주니 장갑의 손가락 끝은 없는 쪽이 훨씬 좋게 되는 것이다.



〈그림 5〉

특수한 군용 장갑

전쟁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가리지 않고 계절없이 사철하게 된다.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총쏘기. 겨울에 보통 장갑으로는 총쏘기가 거북하다.

손의 동상을 막으려면 병어리 장갑을 끼는 것이 좋겠지만, 집게손가락을 써서 방아쇠를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에 병어리 장갑으로는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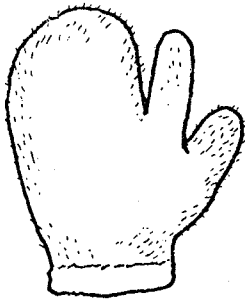
그래서 엄지, 집게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따로 한 군용 장갑<그림 6>이 태어났다.

군용장갑은 군인들이 집게손가락을 자주 써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집게손가락 부분에 털을 적게 넣어 사용하기 좋게 했다.

병어리 장갑을 손가락 하나 더 늘려서 세 손가락 장갑으로 고친 개량장갑이 된 셈이다.

세상은 보고 들을 일이나 물건들이 넘쳐 흐른다.

발명은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한발씩 앞서야 한다. 그러자면 남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잘 듣고, 더 깊이 생각하여 한 발 앞서야 한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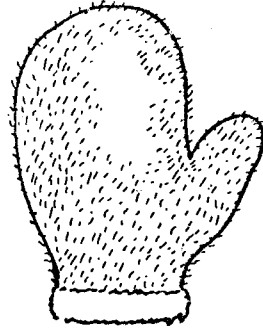
따뜻이긴 그림

방한용 병어리 장갑<그림 7>은 현대 지방 사람들의 필수품이다.

엄지손가락 하나와 나머지 네 손가락은 하나로 묶어 큼직하고 두툼하게 털을 잔뜩 채

운 것이 보기만 해도 따뜻하게 느껴진다.

온대 지방에서도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겨울용품으로 널리 쓰인다. 다섯 손가락을 모두 써야 할 일은 보호자인 어른들이 대신 해주니까. 아기들은 병어리 장갑으로도 불편하지 않다.



<그림 7>

나도 하나 다르게

지금 상태의 장갑을 고쳐 보거나, 다시 덧 붙여도 훌륭한 발명이 된다.

장갑을 끼고 활동하다가 불편을 느끼면 바로 기록한 다음, 불편한 까닭을 찾아내면 발명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존의 물건치고 완전무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발명할 구석은 무한이다.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면 장갑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결점은 있게 마련이니 그게 바로 발명거리의 보물섬이 되는 셈이다.

무관심은 창조의 대적이라 했다. 문제의식이 투철한 곳에 발명이 태어난다. <♣>

**한발앞선 상표출원
국제경쟁 앞서간다**